별빛과 함께하는 청량사 산사음악회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장사익과 별빛나들이'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청량사 산사음악회는 가장 한국적인 목소리의 소리꾼으로 불리는 음악가 겸 국악연주가 장사익 씨가 이끈다. 사진은 2018년 열린 청량사 산사음악회 모습.

청량사 산사음악회 '장사익의 별빛나들이'
10월 5일 오후 7시 봉화군 청량사 경내
장사익, 청량사둥근소리합창단 등 출연

가을 풍경이 아름다운 도량 청량사(주지 지현)가 산사음악회로 가을을 시작한다. 경북 봉화군 청량산 청량사는 10월 5일 오후 7시 경내 무대서 2019 청량사 산사음악회 '장사익의 별빛나들이' 를 개최한다.

'장사익과 별빛나들이'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청량사 산사음악회는 가장 한국적인 목소리의 소리꾼으로 불리는 음악가 겸 국악연주가 장사익 씨가 이끈다. 산을 오르듯 인생을 노래하는 소리꾼 장사익과 한 편의 시를 읊듯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박강수, 대중적이면서도 풍부한 예술성으로 활동하는 팝페라 그룹 퀸스틀러, 흥과 멋을 담은 전통연희단 잽이, 아름다운 마음만큼 아름다운 음성으로 부처님 법음을 전하는 청량사의 둥근소리합창단이 가을밤에 어울리는 음악을 선사한다.

청량사 산사음악회의 음악은 눈으로 듣는 맛이 또 하나의 매력이다. 가을이 아름다운 청량산 기슭에 안긴 청량사의 풍경과 화려한 조명의 무대가 어우러져 음악의 빛깔을 더한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별빛나들이' 라는 테마가 더해져 가을 밤하늘의 별빛들이 음악의 깊이를 더한다.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은 "우리 인생은 슬픔 속에 기쁨이 있고, 기쁨 속에 눈물이 있습니다. 인생을 노래하고 그림을 그리듯 노래하는 사람, 소리꾼 장사익 님과 별빛나들이를 떠나 볼까 합니다. 슬픔도 기쁨도 다 추억이 되는 날 있으니 우리 여기 청량사 도량에서 별빛 마중 한 번 나가 보면 어떨까요? 청량사의 가을은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도량 청량사 하늘 위로 초롱초롱하게 걸린 별빛들은 외롭고 지친 대중의 가슴을 따뜻하게 위로해 줄 것입니다"며 "별빛들과 함께 하는 청량사 산사음악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청량사 밤하늘을 밝히는 별빛나들이 길에 함께 하시어 사랑과 행복,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고 했다.

이번 공연을 이끄는 장사익 씨는 1994년 '장사익 소리판 하늘로 가는 길' 로 데뷔했다. 8장의 앨범을 발표했으며 국회 대중문화상, 미디어 대상 국악상 등 다수 수상했다. 대표곡은 찔레꽃, 꽃구경, 봄날은 간다. 님은 먼 곳에, 장돌뱅이 등이 있다.

가수 박강수는 2001년 1집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7집의 음반을 발표했다. 제18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여자포크싱어상 등 다수 수상했으며 꾸준히 라이브공연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표곡으로는 영화 마파도 ost 비둘기에게, 꽃이 바람에게 전하는 말, 가을은 참 예쁘다, 사람아 사람아 등이 있다.

전통 연희단 잽이는 국악 전공자로 이루어진 전문 연희 단체이며 사물놀이, 사물판굿 창작 모듬북 퍼포먼스 작품 등 다양한 공연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5년 UN세계관광기구(WTO) 환영만찬 초청공연(울산 함월루), 러시아 우수리스크 초청공연 등 다수 공연했으며, 2019년 풍류열전, 부산영남지역 청춘마이크에 선정됐다.

퀸스틀러(팝페라)는 대중적이면서도 풍부한 예술성으로 활동하는 전문 팝페라 그룹이다.

청량사 둥근소리합창단(지휘 · 이종만, 반주 · 류지영, 단장 · 손현숙)은 2014년 창단해 부처님 법음을 전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경북, 봉화, 영주, 안동 지역을 대표하는 불교합창단이다. 2015년 제1회 정기연주회를 시작으로 여섯 번의 정기연주회를 가졌다.

사회를 맡은 정유탁은 KBS, MBC, BBS 등에서 각종 문화공연과 공개방송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다. 연등회 축제 회향한마당, 청량사 산사음악회 등을 진행했다.

'구름으로 산문을 지은 청정도량' 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청정함과 고귀함, 신비스러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청량사는 신라 문무왕 3년(663년)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송광사 16국사의 마지막 스님인 법장 고봉선사에 의해 중창됐다. 청량산의 문수봉, 금탑봉, 연화봉, 반야봉으로 둘러싸인 청량사에는 공민왕이 현판을 쓴 지방유형문화재 유리보전과 김생이 공부하던 김생굴, 퇴계 이황이 수도하며 성리학을 집대성한 청량정사, 최치원의 유적지 고운대와 독서당, 공민왕당 등의 유적들이 있다. (054)672-1446

조선 불교미술 가치의 이해

'조선시대 불교회화에 대한 이해' 강좌
무수아카데미 9월 19일~11월 14일 총 8회

조선시대 불교미술의 집중 탐구와 불교미술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특강이 열린다. 전통불교미술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비로운 부처님 말씀을 그림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무수아카데미는 9월 19일부터 11월 14일까지 매주 목요일(7시부터 8시 30분까지, 총 8회) '조선시대 불교회화에 대한 이해' 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무수아카데미의 2019년 상반기 강좌 '고려시대 불교회화의 분석과 이해' 를 잇는 하반기 강좌다.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번 강좌는 △제1강(9/19) 석가모니불 관계 불화 △제2강(9/26) 팔상도와 영정 △제3강(10/10) 비로자나불 관계 불화 △제4강(10/17) 아미타불 관계 불화 △제5강(10/24) 명부 관계 불화 △제6강(10/31) 신중도 △제7강(11/7) 칠성도 · 산신도 △제8강(11/14) 조선시대 괘불화 순으로 진행되며 강의는 김창균(前 동국대 불교미술전공 교수) 교수가 맡는다. 이번 강좌는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귀족불교' 로 불리며 왕실의 후원이 주를 이루는 고려시대 불화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러 보편화되는 조선불화는 곧 대승불교의 대중화를 의미한다. 현재 사찰에 봉안되어 있는 불화는 대부분 조선불화로 이번 강좌에서는 매주 각기 다른 주제의 불화를 집중분석함으로써 불화의 양식이 고려불화에서 벗어나 점차 조선불화양식의 특징을 정립하기에 이르는 것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불교미술의 예술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강의를 진행하는 김창균 교수는 한국불교미술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소암불교미술문화재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02)720-3554. 박재완 기자

'고려 보물 속 들여다보다'展 연장

9월 29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3층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지난 6월 12일부터 상설전시관 3층 청자실 옆에서 열리고 있는 '고려 보물의 속을 들여다보다' 의 전시 기간을 9월 29일까지로 연장한다.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문화재를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보는 '고려 보물의 속을 들여다보다' 전은 건칠보살좌상과 청자 어룡모양 주자(국보 제61호) 등의 고려시대 유물과 '대고려 918 · 2018 그 찬란한 도전' 특별전(2018. 12. 4~2019. 3. 3)에서 공개하지 못했던 보존과학의 성과와 역할을 전시유물의 상태점검, 과학적 조사, 보존처리 및 전시실 보존 환경측정 등의 영상 자료로 보여준다. 보존과학부를 통해 최근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과거에는 알 수 없었던 문화재 속의 정보들을 새롭게 밝혀나가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이번 전시는 초 · 중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될 정도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고려시대의 보물 중 청자 어룡모양 주자, 청자 칠보무늬 향로(국보 제95호) 등 국보 4점을 포함한 총 6점의 중요 문화재의 비밀을 풀기 위하여 컴퓨터 단층촬영(CT) 이미지를 디지털 영상으로 재구성하여 새롭게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 디지털 영상으로 구현된 청자는 청자실에서 직접 실물로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유일한 고려시대 금동십일면천수관음상의 보존처리 내용을 소개하고 은제 금도금 표주박모양 병의 자세한 관찰을 위하여 디지털 돋보기 등도 함께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관람객의 연령과 상관없이 새로운 차원의 전시였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특히 고려청자를 애호하는 관람객의 호응이 컸다. 또한 외국인 관람객과 문화재 관련 전문가들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02)2077-9000.

박재완 기자

